

조계종 중정이며 해인총림 방장 법전스님을 비롯한 조계총림 덕숭총림 영축총림 방장과 태고총림 선원장 스님은 28일 임오년 하안거 결제 법어를 통해 "모든 것이 인과임을 믿고 산공부를 해야 한다"며 "자기 마음

임오년 하안거 결제 법어

“자기 마음이 참부처입니다”

청산이 백운을 덮었으니

조계종 중정 법전스님



(상략) 선문(禪門)에서는 백운을 자유자재(自由)로 오고가면서 집착하지 않고 걸림이 없는 수행자에게 비유합니다. 하지만 걸모양만 머물러 있다고 모두가 청산이요, 자유롭게 걸림없이 나다니고 해서 백운인 것은 아닙니다. 몸은 머물러 있지만 마음에 집착이 없는 사람은 몸은 비록 청산이지만 마음은 백운인 것입니다. 몸은 걸림 없이 다니지만 마음이 어느 한 곳에 고착되어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의 몸은 백운 속에 머물러 있겠지만 마음은 청산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어느 때건 백운이 될 수도 있고 청산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운과 청산은 늘 함께 연기관계인 중도를 이루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중략) 주인이란 구름이 정수리를 덮음으로, 손님이란 백석이 눈섭을 덮는 것이로다. (중략) 서로의 거러만 문지기의 권한에 한계가 있는 것이요, 손님과 주인의 이야기란 옥소리 금소리로구나. 그렇다면 이 산승이 사회결제대중에게 물겠습니다. 천둥 정각 선사의 이네 글씨가 옛 선지식의 말씀과 같은 것입니까? 다른 것입니까? 총림에서 결제를 하러 온 눈푸른 남자들은 이 한 철 동안 잘 가려보시길 바랍니다. (역략)

역대조사시하불(歷代祖師是何佛) 개시허망망시불(皆是虛妄妄是佛) 생불원시동일체(生佛原是同一體) 이망념자박자승(以妄念自縛自纏) 역대 조사 어떤 것이 부처이나, 모두 허망하여 허황된 것이 부처이니라. 중생과 불이 원래 한 몸인데, 망념으로써 스스로 얽어 묶네

어느 때인가, 유점사의 오십삼불을 모신 법당에서 많은 대중이 모인 중에 만공 조실스님께서 "부처님이 원세뿐이나 되는데 어느 부처님이 주인



중생과 불이 본래 한 몸

덕숭총림 방장 원담스님

불(住人佛)인고?" 하고 물으셨다. 한 남자가 팔을 들어 한 복판의 부처님을 가리키자 조실스님께서 "손 없는 사람은 못 가리키겠다" 하시자, 남자는 "손으로 가리키지는

않습니다." 하니 조실스님께서 "그러면 무엇으로 가리켰단 말이고!" 하시니 이에 남자는 다시 팔을 들어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조실스님께서 "님의 흥내 내지마라" 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대중들은 일

動과 靜이 모두 인과임을 믿어야

조계총림 방장 보성스님



(상략) 임란 때 사명스님이 왕명을 받들고 강화사절이 되어 일본을 건너 갈 때 동래부사가 병을 핑계로 전송하지 않았고 강화책임을 완수하고 돌아 올 때도 동

래부사는 여전히 병을 핑계로 영접하지 않자 참수로 별하였다. 스님께서는 말년에 해인사 총제임에서 요양할 때 의사를 불러 치료를 받는데 침이 혈에 흡하는 순간에 독침임을 감지하고 내 허락없이 침을 빼지 말라고 한 뒤 대

음이 참부처인줄 알아야 한다"고 설했다. 해인총림 법전, 조계총림 보성, 덕숭총림 원담, 영축총림 월하, 태고총림 지허스님의 임오년 하안거 결제 법어를 간추렸다.

중을 불러놓고 나는 지금 독침을 맞고 있으니 침을 뽑고 동시에 목숨이 끝날 것이다. 내가 동래부사를 참한 인과를 오늘 갚는 것이니 내가 죽은 뒤에 의사를 벌하지 말라고 했다하니 인과는 범부와 성인이 똑같이 받지만 범부는 인과에 속아 살고 성인은 인과에 속지 않는 것이 다를 뿐이다. 금일대중은 인과에 속지 않을 자신이 있는가. 원포자귀청장후(猿抱子歸淸) 후(章)하고, 조함화락벽암전(鳥啣花落碧巖前)이로다 원승이가 새끼를 안고 푸른 산 뒤로 가고, 새가 꽃을 물고 푸른 바위 앞으로 내려오네 금일대중은 一動一靜(일동일정)이 모두 인과임을 깊이 믿고 일하는 것과 공부에 들어야 안산 공부부를 하기 바랍니다. (하략)

이 생각을 굳게 집착하여 불도를 구하고자 한다면 비록 미진함을 지내다 하여도 어려울 것이니라.

강월조요송풍취(江月照幽松風吹) 영야정소하수위(泳夜淸澗何所爲) 사방회고무역처(四方回顧無覓處) 폐목침묵즉시불(閉目寂默卽是佛) 강 위에 달 밝고 솔바람 맑으니, 고요한 밤은 하늘 아래 무엇을 할꼬, 사방을 돌아 봐도 찾을 곳 없더니, 눈 감고 함묵함이 부처라네. 불(佛)!

나무 고래가 바닷물 마시니...

영축총림 방장 월하스님



(상략) 분명하고 씩씩하며, 산뜻하고 텅 비었도다. (중략) 과거의 부처도 이렇게 살았고, 현재의 부처도 이렇게 살고 있으며 미래의 부처도 이렇게 살 것이니, 산승이 부르는 이 노래도 이미 잠깐때만 사부대중은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서 즐기고 있는가?

(중략) 활을 하고 한방망이에 바로 형세가 드러나니 제방의 노수가 서로 범거항하나 영

축산길서 노래하는 자만이 예나 지금이나 바뀌지 않는구나. (중략) 선원대중은 오늘 결제를 하니 당장 무심으로 묵연히 계합할 뿐이요, 마음으로 헤아리면, 곧 어긋난다. 만약에 한 생각도 없애도 그것도 경계이니 망령된 마음을 스스로 없게 한다면 더 이상 쫓아가 찾을 것이 없을 것이다. 곳곳마다 모두 원만하고 여러 만물이 낱낱이 부처이니라. 목경음해수(木鯨飲海水) 노출해저산(露出海底山) 나무 고래가 바닷물을 마시니 바다 밑의 산이 드러나는구나.

법어전문 buddhanews.com

몸 편하니 곳곳이 내집일세

태고총림 중앙선원장 지허스님



백운운리청산중(白雲雲裏靑山重) 청산산중백운다(靑山山中白雲多) 일여운산장작반(日與雲山長作伴) 안신무처부위가(安身無處不爲家) 흰구름 깊은 속에 푸른 산이 험하고, 푸른 산 깊은 속에 흰 구름만 많다네

남마다 구름과 산이 내 친구인지 오래라, 몸마저 편하니 곳곳마다 내 집일세.

이 송(頌)은 종조 태고화상(太古和尚)께서 깊은 산속에 수행하시면서 하늘에 떠서 정처 없이 흐르는 흰구름을 보시고 무심코 혼자하신 말씀이십니다. 본래 처음 발심해서 화두드는 날이 결제로 화두를 타파하여 확실히 하는 날이 해제날 이었으나 준봉을 오르며 가파르지만 하연 오르는 사람이 지난(難)하므로 도리어 해태(懈怠)를 일으켜 퇴전할까 염려되어 간간히 평지를 두거나, 얼마간 내리막길을 두었다 오르는 것 같습니다. (중략) 천하의 모든 남자들이여! 결제대중들이여! 옛날에는 대지가 타들어 가서 천지만물이 말라 죽고 무수한 인명이 굶어 죽는 가난이 있었습니다. 이런 가난을 일컬어 송곳질을 땅도 없다 하는 원천 가난입니다. 이 원천 가난에 이르렀어도 최승선생 중에 여래선 밖에 안된다 하니 어떻게 해야 무릇 조사선이 되겠습니까? (하략)

“율원설립 총림寺格 갖추터”

화엄사 주지 선출된 명섭스님



교가 있어야 한다. 또 주 5일근무제를 대비하여 화엄사내에 영상과 강의시설을 갖춘 현대적인 종합연수시설도 지을 예정이다. 종합연수시설은 다양한 지역행사를 사찰로 유치하는 효과와 함께 도시민 대상의 정기적인 수련회를 개최하여 무종교인까지 포교할 수 있도록 하겠다.

조계종 제19교구본사 화엄사는 17일 적목당에서 산중총회를 열고 신임 주지에 명섭스님(곡성 태안사 주지)을 선출했다. 명섭스님은 1964년 도천스님을 은사로 득도하여, 70년 법어사에서 고암사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으며, 화엄사 총무, 제9대 중앙총회 의원, 천은사 주지 등을 역임했다.

◆처음으로 본사주지 소임을 맡으셨는데, “모범적인 본사운영을 하도록 노력하겠다. 특히 공부하는 많은

◆스님께서는 5년 전 관람료사찰 자율화에 앞장서신 것으로 알고 있다. 말사인 천은사 관람료 합동징수가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데.

“시민단체의 주장은 반대를 위한 반대의 측면이 있다.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환경을 보존하고, 시설보수를 위한 관람료 징수는 정당화되고 있다. 관람료는 사찰의 수입이 아니라 문화재 보존 및 보수를 위해 필요한 것이다. 관람료 사찰에서 관람료자들에게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징수액의 30%를 사찰보수 및 승가교육

선교양종 본찰목표 마스터플랜 추진

문중회합 바탕 포교·복지시설 확충

스님들이 수행공간에서 깨달음을 얻어 중생교화에 나설 수 있도록 적극적인 뒷받침을 할 생각이다.

◆화엄사 발전을 위한 구상은, “100평 규모의 화엄사 선동선원이 개원하여 26일 하안거 정진에 들어갔다. 앞으로 율원을 설립하여 삼보사찰에 버금가는 화엄총림의 사격을 갖춰 나가겠다. 그래서 남도 최고 선교양종 본찰을 목표로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세워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또 서울 대구 광주 등 대도시에 각각 포교당을 설립해 포교에도 적극 나서겠다.”

◆호남불교가 상대적으로 낙후돼 있다는 평을 듣는데 활성화 방안이 있으시다면, “지역불교 활성화를 위해 구례 곡성 여수 여천 지역 등 교구 내에 장애인, 무료 양로원, 고아원 등 복지시설을 설립하고, 1지역 1유치원의 원칙을 마련, 어린이 포교시설을 확충해 나가겠다. 불교미래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어린이·청소년에 대한 적극적인 포

기금 등으로 예치하려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도 주 5일근무제를 실시키로 하는 등 관공제문화가 사회를 주도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종단에서도 문화재사찰 주지 및 책임자를 위한 연수를 마련하여 행정과 문화재보호등과 관련한 전반적인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명섭스님은 무엇보다 문중회합을 강조했다. 스님은 “화엄사도 400여명의 재직스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을 때만이 발전을 기약할 수 있다”며 “문중회합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승려위계질서 확립”이라고 밝혔다. 스님은 “본사가 확실한 위상을 갖춰나가면 지역이미지 제고로 이어져 지역불교 발전은 저절로 이워질 것”이라면서 “화엄사가 여러 불사를 원만히 회합하고, 불교발전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종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당부한다”는 말로 인터뷰를 마무리 지었다. 김원우 기자

삼보사이버불교대학 탄생 1700년의 불교문화를 선도할 최초의 전문직 포교사대학!

비영리 종교법인인 대한불교삼보회(삼보법회)가 순수 재가불교 신행단체로서 40여년의 역사와 함께 삼보의 해명을 받들어 불교대중화를 선도할 사이버불교대학 학생을 모집합니다.

시간은 자유! 지역과 공간도 자유! 삼보사이버불교대학에서 진정한 삶의 행복을 만나 보십시오.

삼보사이버불교대학 제 1기 포교사 모집 공고

1. 교육과정 및 기본전형

교육과정	교육기간	교육기간	교육방법	지원자격 및 입학신청 기타사항
일반포교사	온라인 : 1년 오프라인 : 6개월	● 인터넷 자율교육 ● 법학, 의식 자율교육	● 홈페이지 참조 ● 온라인으로 등록 및 신청	● 졸업장 수여(1년 과정) ● 전문직 포교사로 활동(학칙에 준하여 유급직 가능) ● 전문포교사증 수여(1년6개월 과정)
장의포교사	상 동	상 동	상 동	● 졸업장 수여(1년) ● 전문직 포교사로 활동 ● 전문포교사증 수여(1년6개월 과정) ● 장의사업관련 불교정보지원
군중포교사	온라인 : 6개월	인터넷 자율교육	상 동	● 수료증 수여(6개월) ● 제대 후 전문 포교사 과정 등록시 경력 인정 ● 군 입대 후 군중병으로 추천
유아(복지) 포교사	상 동	상 동	상 동	● 수료증 수여(6개월 과정) ● 전문 포교사 과정 등록시 경력 인정 ● 불교관련 단체(유치원, 복지원 등) 요청시 추천

2. 입학 안내 및 문의

홈페이지 주소 및 연락처 ● 영문주소 : www.sambobuddha.org ● 한글주소 : 삼보법회, 삼보사이버불교대학 E-mail : sambo@sambobuddha.org (우) 136-849 서울시 성북구 정릉 4동 266-441 삼보사이버불교대학 사무국 TEL : (02)943-2858 FAX : (02)913-3746

삼보사이버불교대학 특징

- ◆ 학생, 직장인, 주부 누구나 쉽게 공부할 수 있는 열린대학
- ◆ 종교적 권위를 지닌 전문가적 교육을 부여하는 대학
- ◆ 온라인, 오프라인 장점을 도입한 이론과 실습 중심의 교육
- ◆ 기존 오프라인 대학 1/2 ~ 1/3 수준의 비용과 시간절약
- ◆ 자격증 취득 후 전문직 포교사로 활동(학칙에 준하여 유급직 가능)
- ◆ 비영리 법인으로 수입 전액 포교사 활동 및 대학발전에 투자

삼보사이버불교대학 교수진

◆ 정병조 교수, 권탄준 교수, 성본스님(동국대), 윤이홍 교수(서울대), 김응철 교수(중앙승가대), 김재성 외래교수(위덕대) 외 2명

(사) 대한불교삼보회 삼보사이버불교대학